

‘야담류’ 역사소설 무엇이 문제인가

서점가에 70여종이나 선봬... 흥행 노린 상업성이 문제

이순신, 황진이, 마의태자, 장희빈, 연개소문, 김삿갓, 장보고, 명성황후, 정약용, 원효, 사명대사, 민비, 연산군, 왕인박사, 임궫정, 김옥균 등등의 인물들은 어떤 공통점을 지녔길래 이 자리에 초대되었는가. 사서오경, 삼국유사, 정감록, 명심보감, 사기, 한단고기, 대장경, 화엄경, 토정비결, 목민심서, 동의보감 등등의 고전들은 왜 이 자리에 한테 모였는가. 진즉 눈치챌겠지만, 이상 호명된 인물과 책은 ‘소설’이라는 관을 씌우면 그대로 소설책 제목이 되는 것들이다. 아직 매장정리가 덜된 교보문고 서가에만도 그런 식의 제목을 가진 책이 70여종이나 꽂혀 있다.

한편, 인물과 고전 앞에 ‘소설’字를 붙인 작품들의 상업적 성공은 그러한 작명법의 유행을 낳았는데 김현구의 「소설 임오군란」(일월서각), 이정창의 「소설 동학」(하늘땅), 박광서의 「소설 여인삼국지」(기린원), 오하일의 「소설 동아일보」(동서춘추), 한유림의 「소설 현대그룹」 「소설 대우그룹」(대성), 박광호의 「소설 단군조선」(삼한), 김시라의 「소설 품바시대」(영한) 등등이 그것. 그리고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의 아들」은 남한의 한마당출판사에서 복제되어 나올 때 「소설 대동여지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86년 「저 석양빛」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던 이남희의 소설은 「소설 갑신정변」(풀빛)이란 새 이름을 얻었으며 번역서 중에서도 「소설 동경제국대학」(까치), 「소설 힐덜린」(까치), 「소설 마르크스」(공동체) 등이 그러하다.

역사소설류의 전성시대

‘편의상’ 역사소설의 범주에 편입된 이들 소설류의 붐을 이끈 작품은, 주지하다시피,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창작과비평사). 90년 3월 초판이 나온 이래 3백만부가 팔린 이 책은 출판사상 베스트셀러 신기록에 육박하고 있으며 기록갱신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이어 올해초 완간된 이재운의 「소설 토정비결」(해냄)은 불과 5개월만에 70만부를 돌파했고, 6월 들어 5권 중 셋째권까지 나온 황인경의 「소설 목민심서」(삼진기획) 역시 현재 베스트셀러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등 바야흐로 역사소설은 위의 ‘트로이카’를 중심으로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소설들이 90년대 들어 잘 읽히는 이유는 크게 세 갈래로 가닥이 잡힌다. 우선

전망의 불확실성 혹은 전망의 부재 속에서 이야기의 시간과 공간이 과거로 향한다는 것. 이에 대해 평론가 우찬제씨는 “체대로 된 역사소설의 경우처럼 과거를 현재의 구체적인 전신으로 인식하여 현재의 새로운 발견을 위한 지혜를 과거에서 빌린다거나 혹은 과거의 반성을 통해서 현재의 지평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허황된 이야기를 근거없이 늘어놓음으로써 소모적인 자기퇴행성과 낭비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

둘째, 대서사가 해체된 후 당대의 전체성과 총체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드물어지자 독자들이 소설의 본령인 유장한 이야기의 세계를 간구한다는 것. 평론가 류철균씨는 이에 대해 “이들은 작금의 순문학작품이 지나지 못한 영웅서사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속하고 왜소화된 일상에 매여 있는 대중들의 극적이고 일발승부적인 삶에 대한 동경과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풀이한다.

셋째, 영상매체에 익숙한 독자들의 취향에 부합한다는 것. 속도감 있는 문장과 구성, 고전과 위인에 대한 간접적 독서 효과, 파란만장한 삶을 훑쳐보고픈 호기심, 소화하기 쉬운 즐거운 지식의 제공 등 시간죽이기 오락기능과 함께 일반독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들 역사소설류의 일부는 또한 문제의식이나 작품의 완성도와 성취도에 있어 기왕의 폭발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던 ‘인간시장’류, ‘홀로서기’류, ‘라즈니쉬’류, ‘재벌총수의 성공담’류와는 자못 차별성이 있어 출판문화관계자들은 이들의 붐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위의 ‘역사소설 토로이카’에 대한 평가가 그렇고, 조정래의 「소설 대장경」(민족과문학사)에 대해 문학평론가 김선학씨는 “(「소설 대장경」은) 역사적 사황을 소설적 체재로 하면서 소설의 덕목인 상상력을 통해 역사와 불교를 통한 인간과악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그 바탕인 당대현실을 통해 불교의 역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천착하려 한다. 소설이 새로운 모습의 인간을 작가가 창조하는 인간학이라고 한다면, 조정래의 이같은 소설적 입장은 역사와 불교의 거대한 격랑에 결코 함몰될 수 없는 인간과 그 생을 견져내겠다는 작가의 의지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박광서의 「소설 장보고」(외길사)는 “새로이



발굴·연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견에 의해 쓰여진 역사기록들을 재수정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그 정확한 사료와 고증을 뽐내고 있는 것이며, 「소설 갑신정변」은 “시작과 끝을 평면적으로 기술하고 거기에 적당한 역사관을 곁들여 평가하는 통상적인 역사소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을 지녔다. 이 소설의 초점을 김옥균 등의 역사인물들의 실존적 내면에 맞춰져 있으며 이들이 하나의 역사적 실존으로서 거침없이 밀려오는 역사의 격랑 앞에서 매순간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힘겨움과 그 극복에 따르는 인간적 궁지와 비애를…… 역사소설의 외양을 띠면서도 사실은 우리 문학사에서 흔치 않은 격조를 지닌 지식인소설”이라는 평판을 얻어낸 것이다.

위의 작품들이 일궈낸 빼어난 문학적 성과 이외에 역사소설류가 대거 등장하는 현상과 그들의 상업적 성공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다. 원광대 윤용이교수는 “우리 선조들이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인식을 왜곡 전파해 온 일제 식민교육의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탁월한 조상들의 업적에 대한 지적·정서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반응”(92.6.2. 조선일보)이라고 분석했고, 시인 이근배씨는 “그동안 시대물이라면 설화 위주의 막연한 예기, 살상만 일삼는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주조를 이루어왔으나 독자들도 역사의 본질, 자기 본바탕을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같은 책들이 많이 팔리는 것”(91.6.17. 동아일보)이라고 진단한다.

이 계열의 대다수 작품들은, 그러나 한 논

자의 어투를 빌리자면, “소설이 아닌 것”이고 ‘이야기’인 것.

역사소설인가 야담인가

우리나라 역사소설의 중요한 흐름은 「임궫정」 「장길산」 「토지」 「객주」 「태백산맥」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문학으로써 한 시대를 정리하고 있으며 역사와 문학이 서로 행복하게 만나 문학사의 봉우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념의 소설적 자기전개운동으로 그때의 소설은 한낱 개인적 공상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반면 역사적인 것을 소재로 다룬 ‘이야기’는 이광수, 김동인 등이 ‘역사를 사유화’한 데서 비롯, 박종화, 김성한으로 이어져 정비석의 「소설 손자병법」이 밀리언셀러로 등록되면서 정착, 지금에 이르고 있다. 소설가 박태순씨는 ‘역사적 상상력과 문학’이라는 글에서 “이광수의 「마의태자」 「이차돈의 사」 「단종애사」 따위에 김동인의 「대수양」 「젊은 그들」 그리고 박종화의 「다정불심」 「금삼의 피」 따위들…… 역사소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야담소설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 힘든 이런 작품들은 일제시대의 현실에서 ‘역사에로의 도피’가 얼마나 비겁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연하게 해준다”고 말한다. 따라서 후자의 소설들은 엄밀하게 말해 역사소설이라기보다는 상업소설 또는 대중소설에 가깝다는 것이다.

평론가 김중희씨는 “역사소설이란 역사의 골격과 문학의 골격이 날줄과 씨줄을 이뤄 시대를 거둬올리는 그물 같은 것으로, 「소설

동의보감」 「소설 토정비결」 「소설 목민심서」는 ‘비교적’ 역사소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요즘 역사를 다룬 소설들은 대체적으로 문학성보다는 오락성에 치중, 흥미와 스토리의 재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어 “이러한 유사-역사소설들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줄거리를 번안과 각색의 수준에서 풀어놓은 것”이라고 지적, 현재적 의미가 거세된 채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 없이 현실도피적인 문제해결방식을 보여주는 경향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평론가 김철씨도 “본격적인 역사소설의 잣대로 이 소설들을 평가하는 것은 넌센스고, 상업주의 소설의 한 부류라는 맥락에서 살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다.

이처럼 신문학 초창기부터 오해되어 사용된 역사소설이란 개념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 없이는 참다운 역사소설이 써어지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근래들어 봄을 타고 출간된 70여종의 이같은 소설들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역사소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문학전반에 걸친 주요사안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각도를 상업주의 대중소설에 맞추면 그 소설류들이 문학관 및 일반인들의 독서경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그 의견

들은 옹호론이 우세하다.

옹호론의 대표주자는 민음사 주간 이영준 씨. 그는 “출판이란, 지식을 공유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 이데올로기”라고 전제하고, “이 소설들이 순진한 낭만주의와 단순한 민족주의의 정조를 띠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학의 울타리 안에서 고풍이 냄새를 피우고 있던 고전들이 많은 이에게 서비스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소설 동의보감」 등의 흥행에 편승하기 위해 급조된 작품들은 견제 받아야 마땅하지만 잡초 없는 정원이 있는가”고 반문하고 “상업주의를 마치 동네북처럼 질타하는 이들이야말로 문화의 엄숙주의, 엘리트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계속하여 출판계의 전반적인 불황속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대중문학작품이 일으킨 독자층의 확대와 양서출간에의 기여에 대해 예를 든다. “「홀로서기」가 공전의 판매량을 기록할 때 민음사의 시집 매출액도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청하의 니체, 고은, 그르니에 전집 출간은 무엇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소설 동의보감」이 창작과 비평사의 만성적 적자 보전은 물론 ‘창비아동문고’ 발간 등 새 사업까지 가능케 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주의적 발상과 기

획으로 태어난 책들의 절대다수는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에 지배받고 재투자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독자들의 우리 것에 대한 회고적 향수에 역할해 출판사측이 급조해낸 대다수 유사 역사소설들은 오히려 ‘악서가 양서를 구축’하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다음은 문예출판사 전병석 사장의 말. “독자들이 소설인 줄을 모를까봐 친절하게도 ‘소설’字를 붙여준 그 책들은 잠재적 독자들의 독서경향을 오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출판업계에 손해를 끼친다. 작품성보다는 상업적인 성공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책들은 일반 소매서점에서 높은 마진율을 담보로 좋은 위치에 진열되므로 좋은 책들은 계속 고전하게 된다”

악서가 양서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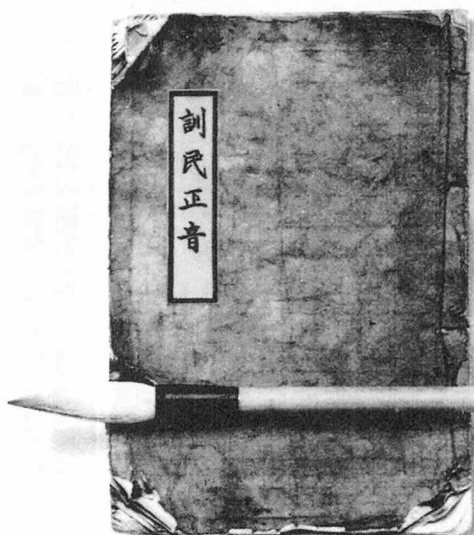
그밖에 작금의 역사소설류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소설은 예술의 일종이므로 나름대로의 자율적 구조를 지녀 사소한 역사적 사실의 충실성 여부가 작품에 결정적인 흠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없이 전체성과 총체성의 달성은 힘들다는 것. 성균관대 박희병교수는 “한 작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 10년 넘게 자료수집에 매달렸다는 기사들을 보고 연구자들이 작가에게 제대로

정리된 자료를 서비스하지 못한데 대한 일단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것에 대한 교양을 준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작가들이 전반적으로 역사의식이 빈곤하고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둘째, 진지하지 못한 문제해결방식. 고전과 옛인물을 새롭게 본다는 측면보다는 센세이션리즘과 오락 기능에 충실한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말은 현실도피적이고 즉흥적이라는 것.

셋째, 문학제도권 밖의 무명신인들이 대거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필자의 대중화와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자신의 문장과 문체도 없이 쉽게 뛰어든다는 것. 소설가 주인석씨는 “작품은 독자에게 수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관념이 소설의 본령이 아닐진대 90년대의 소설들이 실험과 해체에 치중되어 있어 독자들과의 거리가 더 멀어져가고 있다”며 전문문인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 김중식 기자



자랑스런 한글을
더 아름답게 다듬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
바로 **인컴**[®]의 사명입니다.

DTP, CTS의 本家
(주)인컴컴퓨터그래피
HANKOOK COMPUGRAPHY CO., LTD.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70-27번지 시사빌딩
TEL : 02 277-2016 代表 代表 FAX : 02 277-2019



인컴[®]은 (주)한국컴퓨터그래피의 등록상표임